

原子力에 대한 프랑스國民의 意識

세계적으로 봐서 원자력의 평화이용에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유독 프랑스만이 비교적 순조로운 진전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의 독특한 국민성에 기인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원자력사업자측의 PR(Public Relations)활동의 결과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프랑스에서는 communication과 community(지역사회)의 중시, 정보 공개와 성실한 대응, 홍보담당자의 표현기술의 육성, 사고시의 즉각적인 통고와 정보전달계통의 정비 등, 이미 30년 이상에 걸친 실적이 원자력에 대한 현지와 국민의 신뢰감 조성에 기

여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인의 특유한 국민성과 독특한 국내사정(배경)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프랑스국민의 수용태세와 사업자측의 사회활동을 그대로 다른 나라에서 적용해 원자력수용문제를 거시적으로 비판해봐도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나 프랑스에는 다른 나라에서 참고할만한 많은 자료가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전력공사(EDF)에서 이미 발표한 「어떻게 하면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나?」라는 일반사회를 대상으로 한 지침이 있다. 이 EDF사 지침의 요점을 참고로 <표 1>에 표시했다.

<표 1> 어떻게 하면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나? (EDF사의 지침)

[1] 원자력 PA 동향에 대한 EDF의 기본적 인식

- ① 많은 국민은 원자력을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받아들여 그 현실(1989년말 현재 발전로 54기, 총발전량의 75% 공급)을 중요시하고 있다.
- ② 그러나 체르노빌사고후 여론은 유동적으로 되었다.
- ③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1989년에 「원자력반대」 51.5%, 그러나 원자력에 대한 신뢰성이 점차 안정돼 가고 있다.
- ④ EDF는 국민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PR 활동을 벌인다.
 - 원자력관계의 communication 에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은 심리적으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 사업자측의 성실성과 공개성이 필수조건이다. 사업자측과 일반인들과의 인간적 관계가 중요하다.
 - 프랑스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전역의 원자력사업체와의 유대가 PR활동에는 불가결하다.

[2] 일반국민과의 정보교환

①원자력시설 견학 촉진

·전국의 견학자수는 연간 30만명에 달하지만 이를 더욱 촉진시킨다.

②원자력시설측의 정보센터 확충

·원자력에너지의 기술, 경제, 생태학분야에서의 정보제공. animation model, 게임, 비디오 카세트, 비디오 디스크, 마이크로 프로세서 등을 활용한다.

③법률에 따른 정보교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지역사회정보위원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중요구성원인 현지정치인, 각종단체, 노동조합 대표자, 학교장들간에 원자력정보 교류를 한다.

(註) 이 위원회는 1984년에 법제화됐지만 실재는 그 이전인 1981년부터 운영돼 왔다.

④임의 자발적인 정보교환

·의사들에 대한 설명회=1988년 이후 EDF산하에서만도 총 5,000명의 의사가 참가하고 있다. 의사는 지식층의 대표이고 정보의 강력한 추진자지만 의외로 방사선 영향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현지언론과의 교류=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발전소운전상황이나 발생한 사건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⑤교육기관에 대한 PR

·국민학생에 대한 과학교육의 강화, 축전기 등 교재의 대출, 중고교생에 대한 시설견학(이미 대상학생의 40%가 이미 견학)을 촉진시킨다. 교사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3] 사업소 종업원에 대한 communication

①종업원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정보원이라는 인식에 따라 종업원용 「원자력 교본」을 작성해서 교육한다.

②원자로운전원에 대해서는 방사선방어를 위한 특별훈련을 실시하고 최종적으로는 전종업원에 확대적용한다.

③원자력기사를 사보에 게재해 현종업원만이 아니고 퇴직자에게도 배포한다.

[4] 위기적 상황의 예방과 관리

①계통적인 예방조치

·언론매체 또는 일반국민들로 부터 반응이 나타날 것 같은 사안을 결정할 때는 사전에 그 전달방법과 계획을 세워둔다.

②정보의 공개와 즉시통보

·정보를 억제해두면 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태가 악화된다. 따라서 어떠한 운전상의 사건에 대해서도 지역사회나 전국적인 보도기관에 즉시 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Minitel에 의한 정보제공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상황이나 사고정보를 Minitel(Videotex)단말기 소유자에 상시 제공한다.

④환경방사선 데이터 공개

·모든 측정데이터를 선출된 대표자나 보도기관에 제공한다(1989년부터). 이는 제공한 데이터의 기술적 의미를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다.

- 시설관리자와 홍보담당자를 시청각 및 표현기술면에서 교육한다.
- 원자력시설의 이상현상을 감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원자력사고척도(nuclear incident scale)를 설정했다(에너지성).

⑤정보전달의 상시체제

- EDF 본사의 프레스실과 현지의 정보담당부서는 야간, 주말을 포함해 상시 교대근무체제로 한다.

⑥긴급사태에 대한 대응

EDF는 긴급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조직과 정보전달조직을 갖추고 있지만 앞으로는-

- 사내적으로 기술진과 정보스텝과의 관계 및 EDF 본사로의 연락.
- 지역차원에서는 현지 원자력발전소와 지방자치기관과의 관계.
- 국가차원에서는 EDF와 산업성과의 관계, 등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긴급시 대응조직상의 문제가 남아있다(현재 검토중).

1. 국민적 합의의 사회심리학적인 개념

먼저 국민적 합의의 사회심리학적인 개념을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들이 일상 사용하고 있는 PA나 PR이라는 말은 좀 막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어 국민적 합의를 위한 사회적 접근의 실상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 Public Acceptance(PA)

보통 「국민적 합의」 또는 「국민적 수용」이라고 해석되고 있지만 너무 딱딱하게 들려 이 말 자체가 PA에 장애가 되고 있다. 그 의미는 「과학기술이나 이에 따른 행위가 사회로부터 어떻게 인지되고 이를 받아들이는데 있어 넓게 국민적 합의를 얻어낼 수 있는지 또는 얻고 있는지」라는 것이다. 즉 PA는 국민의 일반적인 의지의 「평균적인 취합」이어서 정부나 기업 등, 당사자측의 상의하달의 결과는 결코 아니다. 다시 말해 PA는 일반사람들의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정否는 묻지 않는다. 그 결과가 설사 현재나 미래의 국민의 생존에 중대한 장애가 된다 해도 어쩔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책입안자, 행정당국, 사업자측은 사전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PA는 있어도 위에서 본 PA “대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즉 위에서 내려다 본 PA 대책은 매우 위험한 것으로 당사자측도 이를 받는 측의 하나의 구성원이라는 인식하에 민의를 받아 들여야 할 성질의 것이다.

2. Public Relations(PR)과 Public Communication(PC)

PR이란 말의 본래의 뜻은 「일반국민과의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PR란 “사실이나 진실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호의와 신뢰를 높이기 위한 행위다.” 따라서 비밀(은폐), 허위 또는 왜곡, 강압적인 인심조작은 PR의 본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사상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당연히 PR→PA의 도식이 성립된다.

한편 PC는 당사자측과 국민과의 정보교류를 의미한다. 보내는 쪽에서 받는 쪽으로의 일방적

인 정보전달이 아니고 쌍방간, 즉 “대화형”의 정보교환(교류)이 핵심이다. 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홍보활동(Publicity Works)은 일반적인 경우가 많다.

3. Public Perception(PP)와 Risk Perception(RP)

Public Perception의 의미는 일반국민이 「기술 그 자체 또는 이것을 이용하는 개발행위, 즉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적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심리현상으로는 $PP=PC \rightarrow PA$ 란 도식이 성립된다.

Risk Perception이란 PP단계에서 기술적 행위나 자연현상을 「위험성(리스크) 차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리스크에 대해 여러가지 수용자세를 보인다. RP란 「리스크 인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개 개인의 주관에 따른 위험성의 평가」라고도 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RP는 개 개인의 감수성(수용자세) 그 자체라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흔히 이것을 「감성적인 지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인간심리에 대한 올바른 판단은 아니다. 감성적인 지각이 서로 공명해(이성적인 지각보다 공명하기 쉽다) 사태가 더욱 더 흥미해진 예를 우리들은 알고 있다.

4. Risk Perception Gap(RPG)

사람에 따라 「위험성의 인식」에는 큰 차이가 난다. 이 차이, 즉 gap(격차)는 당사자쪽(기술자들)과 일반인(받는 쪽) 사이에서 대단히 크다. 일반적으로 「현상공정·미래지향형」의 사람은 리스크를 작게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형에는 자연보호를 인식하면서도 개발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 즉, 세계관으로는 문명공정(유지) 쪽으로 기울어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원자력발전소 사고규명은 필요하지만 그 경험을 원전의 안전성 향상에 이용한다고 하는 기술·관리체제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반해 「자연보호·문명의문시형」의 사람

은 리스크를 크게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인간형에는 기술을 의문시(또는 부정)하는 사람,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 세계관으로 보아서 자연관으로 사는 사람, 예술가기질의 사람, 원자력사고는 기술적인 것이 아니고 본질적이라고 보는 사람, 즉 「정신중시·관리」 경향의 사람들이 많다.

5. Risk Communication(RC)

Risk Communication은 본래 개발행위가 계획된 시점부터 진행되는 것이 정식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보내는 쪽」은 처음부터 기술 리스크를 공개해 정직하고 솔직하게 「받는 쪽」에 얘기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관련기술에 대한 받는 쪽의 「공포심」을 덜어주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된다. 보내는 쪽에 불리한 리스크상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숨기지 않고 대화를 진행시키는 것이 정식이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일반인들이 품고 있던 공포의 내용이나 정도가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니다라던가 그것이 오해였다고 자기 스스로가 재인식했다면 RC는 성공한 셈이다.

그러나 RC 문제를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게 된 다음에 당황해서 적용하기 시작한다 해도 많은 노력만 하고 효과가 적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많을 뿐더러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킬 위험성마저 있다는 것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RC는 일방적인 선전이나 광고의 기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성숙한 민주주의적 사회에서의 일반인들에 대한 정보전달을 「기술면의 리스크」면에서 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는 「국민을 정당한 동료로 인정해서(당사자측도 국민의 일원), 국민이 갖는 우려에 귀를 기울여 정직, 솔직, 공명하게 대화를 나눈다」고 하는 정신에 있다. 대화에 있어서는 ①리스크가 있는 기술은 리스크가 있다고 처음부터 당당하게 말하고 ②그리고 나서 리스크에 대한 기술적, 사회적 대응을 설명하고 ③사실(예컨대 사고)은 사실 그대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RC로 반대가 찬성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보내는 쪽」의 성의로 호감을 사게 되는 것이다. 옳다고 해서 사회가 모두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심장이식이나 생명과학도 원자력의 경우와 비슷하다. 기술 그 자체의

안전성 보다 기술을 운영하는 사업자측(국가 포함)의 신뢰성을 묻는 최근의 사회적 동향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당사자측에 대해 「호감」을 갖게 하는 것이 첫 순서다.

2. 프랑스의 원자력사정과 국민의식

프랑스에서의 원자력이용은 순조롭게 진전돼 (1989년12월말 현재 운전중인 발전로 54기, 원자력발전설비용량 5,365만kW, 전체발전량의 74.6%), 프랑스의 경제,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그림 1>에 나타낸 대로 이미 유럽전력망의 중심적인 존재로 까지 발전해 원자력발전에서 물러나거나 앞으로 물러나려고 하는 나라들에 대해 원자력전기를 수출하고 있다.

전력수출량은 1986년에 약 25TWH(T는 tera=10¹²) (그림1 참조), 1988년에 37TWH, 1989년에 42TWH로 급증하고 있는 것은 1992년으로 예상되는 유럽공동체(EC)의 시장통합을 향해 프랑스의 위치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고 있다.

(참고) 전력량 42TWH는 전기출력 500만kW 급 원자력발전소 5기의 연간발전량에 해당한다. 프랑스국내에 이같은 급성장을 의문시하는 비판의 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자국의 수요를 초과하는 발전로의 건설, 이에 따른 경제성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비판이 있는 것이다.

소련의 개혁과 동유럽제국의 급변은 필연적으로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한다. 원자력대국인 프랑스가 앞으로의 동유럽정세에 에너지(전력) 면에서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인지, 그 전략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는 세계유일이라고 할 수 있는 원자력 PA국이다. 체르노빌사고시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던 건전한 국민의식은 독특한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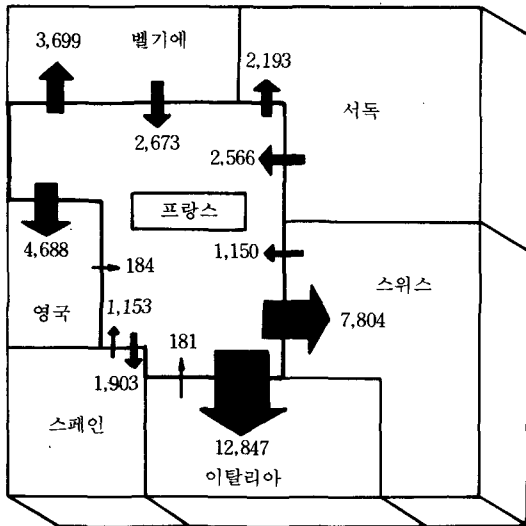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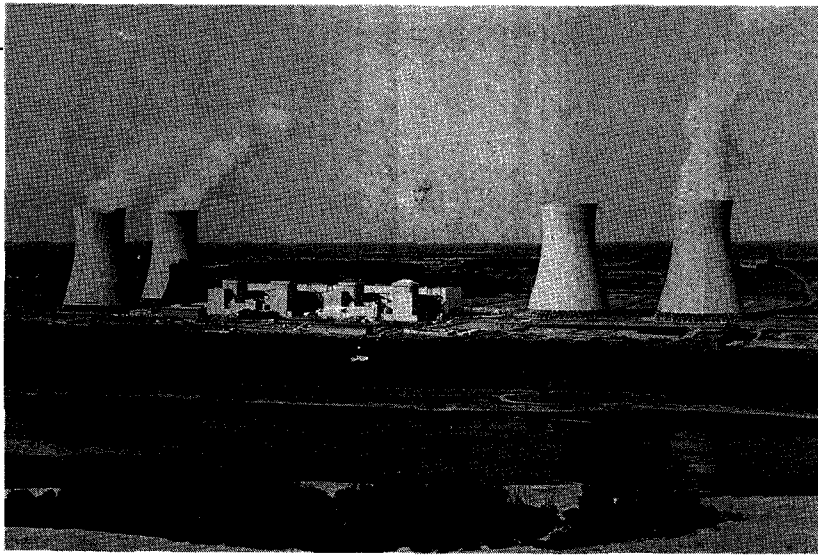
민성에서 온 것은 물론이지만 이보다도 정치적인 안정(대부분의 정당이 원자력 찬성), 장기에 걸친 GNP 상승, 사업자측에 의한 치밀한 PR활동, 정보교환과 지역사회와의 중시, 원자력 시설의 안전조업 등이 큰 뒷받침이 되어있다.

1. 프랑스의 정치·경제현황

프랑스 인구는 5,800만명, 행정기관은 정부(대통령) - 州(의회) - 지방(의회) - 시읍면(의회)로 구성돼있다. 대통령은 임기 7년, 의원(다른 일과의 겸직가능)은 5년, 국회내 세력은 보수·혁신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산당 지지율은 8%, 국민전선(외국인 배제를 내건 극우파, 당수는 르벤씨)의 지지율은 15%다.

원자력정책에 대해서는 미테랑정권(사회당) 탄생이전에는 반대당이었던 사회당이 찬성당으로 바뀌고 파리시장인 시라크씨(전수상), 국민전선의 르벤씨도 찬성하는 등, 정치적으로는 매우 안정돼있다.

그러나 국민적인 차원에서는 찬성·반대가 거의 반반이다. 총체적으로 말하면 프랑스국민(서민)은 「반대가 적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원자력을 빼놓는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좀 더 부정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원자력은 부득이한 선택(필요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러나 이러한 서민의식은 매우 건전한 것이어서 국민적 차원에서의 PA를 결



1986年度 輸出入電力量
(單位:100万 kWh)

- 輸出合計 約33 TWH } 實輸出 約25TWH
- 輸入合計 約 8 TWH

〈그림 1〉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전력수출입

코 위협하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경제는 미테랑정권후에 향상돼 현재의 GNP는 서독의 3/4 정도까지 성장했다(연간성장률 3%). 연간물가상승률은 3.2%, 실업률은 10%, 외국노동자(350만명)에 의한 치안악화에 고심하고 있다.

노동임금의 최저보장액은 주당 39시간노동에

월급여액 5,200프랑이다(이같은 최저임금 소득자는 전국에 약 100만명). 최저액과 월수입 8,000프랑의 중간층이 200만명, 연수입 35만프랑 이상의 고액소득자에는 관리직이 많다. 프랑스에서의 임금격차는 예를 들어 대학졸업의 신입사원이 월소득액 1만2천프랑 정도로 매우 크다.

2. 체르노빌사고의 보도와 당국의 대응

프랑스에서도 체르노빌사고가 큰 화제가 되었다(일부 보도는 선동적). 따라서 당국에서는 일반인에 대해 여러가지 대응책을 강구했다.

보도시기: 체르노빌사고 (1986년4월26일)가 프랑스 남부의 TV에 보도된 것은 사고 10일후(5월6일 이후), 신문에서 다룬 것은 반달후(5월10일 이후)였다고 한다. 이탈리아 밀라노시에서는 이미 5월3일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1개월후 드디어 프랑스에서의 체르노빌 보도 지체에 대해 비난의 소리가 높아졌다.

당국의 대응 (1): Alsace 지방의 Strassburg에서 시금치의 폐기문제가 일어남에 따라 5월8일 이후 하루 3번의 TV 해설이 실시되었다. 출연자인 후생장관은 8시 TV 뉴스 프로그램에서 3번 「그 시금치는 하루 2톤을 계속해서 먹어도 몸에는 지장이 없는 정도」라고 설명하고 또 방사선의학의 권위자는 「몸에 주는 영향은 담배 1개 정도의 것」이라고 해설했다.

당국의 대응 (2): 우선 당국은 "SOS-Chernobyl Hot Line"을 설치해 누구나 언제든지 전

화로 체르노빌사고 정보를 들을 수 있게 했다. 그후 1989년4월부터는 Minitel 시스템(비디오텍스)에 전력상황, 환경·오염상황, 원자력발전소 운전상황에 관한 정보를 추가했다(표1 참조). 4,000만 세대의 거의 반수가 이 시스템에 가입돼있다. 단말기는 주요역·공항 등의 공공시설, 또 사무실의 각개인의 책상위에 비치돼있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간단히 끄집어낼 수 있다.

민간기관에 의한 의식조사: TV TF-1과 일간지 “빠리짱”이 공동으로 체르노빌사고를 주제로 한 일반인의 의식조사를 하고 있다.

①「프랑스에서도 체르노빌 규모의 심각한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날 수 있다고 본다 81%.

②「현재 프랑스의 피난체제는 충분하다고 보는가?」 충분하다고 본다 47%, 충분하다고는 보지 않는다 30%,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주어지지 않다 23%.

③「체르노빌사고가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가?」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30%.

(참고) 이 의식조사는 체르노빌사고 3년후에 실시된 것이다. 의식조사에서 항상 뒤따르는 불확실성은 앙케이트 양식이나 설문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소 유동적이다. 따라서 위의 집계는 대체적인 경향을 나타내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이해해두는 것이 좋겠다. 또한 최근에는 프랑스에서의 주민의식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로 가고 있다.

최근의 주민의식: 1990년초부터 우크라이나에서의 「기형아」보도가 사진과 함께 프랑스의 많은 잡지에 올랐다. 이에 대해 프랑스의 일반 국민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거의 여론의 변화가 없었다. 프랑스의 일반국민들이 무관심해서인지, 방사선 영향에 대해 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분명치 않다.

(참고)프랑스에서는 원자력의 평화이용에 관한 교육이 초·중·고교에 포함돼있다. 국민학교에서는 과학교육의 일환으로 「원자력의 애기가, 중·고교에서는 과외수업의 하나로 「원

자력시설 방문」이 교과목에 포함돼있다. 당연히 교사들에 대해서도 공부할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프랑스전력공사(EDF)는 아동·학생들의 교육에 매우 적극적이다 (표1 참조).

이 점, 「원자력」이라는 말조차 거절하는 교사가 많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는 크게 다르다. 원자력교육을 받은 프랑스의 아이들이 벌써 30세가 되어있다. 한편 이같은 교육을 받지 않은 다른 나라(예를 들어 스위스, 서독, 네덜란드 등)의 아이들도 같은 30세가 되어있다. 전자가 비교적 냉철하게 판단하는데 반해 후자는 신경질적으로 행동하기 쉬운 것도 아이들 시절의 원자력교육의 유무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 프랑스 남부에서의 원자력개발

<그림 2>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프랑스 남부의 로느(Rhone)강 유역은 원자력시설의 밀집지대



<그림2>프랑스남부 Rhône강 유역에 밀집한 원자력시설

년 프랑스에서는 최초의 원자력시설(흑연가스로 G2, 폐쇄)이 Marcoule에서 착공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후로 지금까지 프랑스에서다. 이와 거의 같은 양상을 띠고 있는 곳이 Loire 분지 서쪽으로 향해 Biscay만으로 흘러드는 Loire강의 연안지대이다(연안에는 Belleville, Dampierre, St. Laurent, Chinon의 4개 원전단지가 있다).

(1)프랑스 최초의 Marcoule공장서 부터 1945는 큰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일이 없다(발전로, 핵연료주기시설을 포함해). 이것이 오늘날의 프랑스국민의 PA의 초석이 되어있다. TMI사고나 체르노빌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프랑스는 그 이전부터 안전하게 원자력시설을 운영해온 실적이 있었다. 여러가지 이유를 대는 것 보다는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안전조업」의 계속이 원자력기술 자체와 이것을 운영하는 기관이 신뢰를 얻게 된 첫째 조건이었다. Marcoule시설은 프랑스인에게는 자랑할만한 초석이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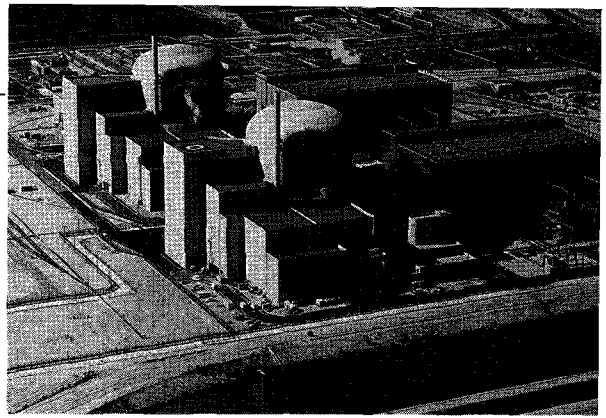
(2)로즈강 연안의 입지

로즈강 연안에 많은 원자력시설이 건설된 것은 ①풍부한 수원 ②Tricastin 주변에 산업이 없었던 것(이 지역의 포도는 저질품이었다) 남부지방 개발에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계획돼 있었다는 것 등을 이유로 들 수 있다. 각시설의 「착공시기」를 <표 2>에 표시했다.

(3)EURODIF 농축공장의 현황

EURODIF 우라늄농축공장은 당초 프랑스(COGENA), 이탈리아(ENEL, AGIP), 스페인(ENUSA), 벨기에(SOBEN)의 4개국에 스웨덴과 이란이 참여한 6개국이 건설돼 공동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스웨덴은 1974년에 일찍이 탈퇴하고 이란은 정변으로 이 사업에서 물러났다.

1982년에 전면조업에 들어간 EURODIF농축공장의 농축능력은 분리작업량으로 연간 10,800t/SWU로 이 값은 전기출력 900MW급 PWR 90기가 1년간 필요로 하는 저농축 우라늄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다. 프랑스의 54기의 PWR 수요에 대해 거의 2배의 생산능력을



<표 2> 프랑스 원자력 시설의 착공시기

着工時期	場 所	原子力施設 (産業)
1945	Marcoule	黑鉛가스爐 G2 (閉鎖)
1958	Marcoule	再處理工場UP1(初期軍事用)
1960	Pierrelatte	軍事用우라늄濃縮工場 (1982年閉鎖)
1962	Cadarache	高速爐實驗裝置 Rapsodie
1966	St. Vulbas, Ain	Bugey原電의 黑鉛가스爐 (1基)
1968	Marcoule	高速增殖實驗爐 Phénix
1970	Malvesi	우라늄轉換工場(U ₃ O ₈ →UF ₆) ...COMURHEX
1970	Pierrelatte	우라늄轉換工場(UF ₆ →UF ₆) ...COMURHEX
1974	Tricastin	EURODIF 濃縮工場
1972	St. Vulbas, Ain	Bugey 原電의 PWR(4基)
1974	Tricastin	Tricastin 原電의 PWR (4基)
1975		
1977	Creys · Malville	高速增殖實驗證爐 Super Phénix
1979	St. Alban, Isere	St. Alban 原電의 PWR (2基)
1980		
1980	Cruas, Ardeche	Cruas 原電의 PWR (4基)

갖고 있다. 세계적으로 농축우라늄 수요가 저조해 1990년6월 현재 이 공장의 가동률은 50%에 머물러 있다.

EURODIF 농축공장의 폐열(주로 UF₆ 압축기의 냉각배수)은 인근 피에라라트시의 난방용 열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열공급관리회사」가 설립돼있다.

3. 프랑스에서의 원자력 PA의 분석과 종합

원자력이용에 대한 프랑스국민의 인식(Public Perception)과 수용(Public Acceptance) 정도와 배경에 대해 그 구체적인 예를 몇가지 소개했다. 각 사례는 프랑스전력공사(EDF)의 對社會 지침(표1 참조)을 완전히 따른 것으로 이것들이 종합해서 프랑스의 원자력이용(개발)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서 프랑스에서 「국민적 합의」를 얻어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 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기로 한다.

근본적으로는 개성있는 국민성이 원자력 PA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원자력 PA에 영향을 주고 있는 국민성

• 개인주의적, 현실주의적, 낙관적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개인의 자유와 인생을 향유하고 싶다. 이미 발전량의 75%에 달한 「원자력발전」을 잃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경제에의 악영향, 생활수준의 저하 등).

• 외국의 간섭 혐오

원자력반대 외국세력의 배제. 자국의 일은 스스로 해결할 책임을 진다.

• 외국에 대해 개성 발휘

반대로 외국에 대해 주도권을 확보, 원자력에서 철퇴(또는 연기)한 타국으로의 원자력전기 수출, 타국의 사용후연료의 재처리 수탁, 이것들은 국민적 합의를 배경으로 한 선택의 결과다(NATO 불참, NPT 미가입 등도 개성 발휘의 국민성에 기인한다).

• 권위(엘리트)주의

엘리트(기술관료)에 의한 행정, 전문가에 의한 기술개발에 신뢰를 둔다.

• 사상과 행동에서의 남여의 무차별

프랑스에서는 여성이 주도하는 대중적인 반대운동은 전무하다. 한편 여성을 대상으로 한 PR(Public Relations)활동도 특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남여구별이 없다.

• 성실성, 공정성, 투명성의 평가

사업자측의 성실성(Sincerity)는 PA의 시발점이며 정보 자체에 대해서는 공정성(fairness)와 투명성(transparency)가 절대조건이다. 프랑스 국민성은 이들 덕목에 대해 민감하다.

2. 원자력이용과 방사선에 대한 국민의 인식

인식(Perception)의 형태를 지배하는 것은 하나는 국민성이고 또 하나는 학습(경험)이다. 국민성과 학습이 합쳐 그들은 원자력이용과 방사선에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있다.

•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과 평화이용

군사적 이용을 용인하는 입장에서 평화적 이용에 반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군사적 이용에는 당연히 기밀이 존재한다. 이것은 수용되고 있다. 그러나 평화이용의 경우에는 비밀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기술적인 노우하우, 핵물질의 소재, 비밀에 속하는 정보는 제외되는 것이 당연하다.

• 원자력산업과 일반산업

기술의 사회적 수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원자력산업도 다른 일반산업과 다를 것이 없다. 프랑스에서 과거에 실증된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이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 뜬 소문에 의한 피해는 없다

일반산업과 다를바 없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뜬 소문에 의한 피해는 있을 수 없다(그러한 생

각도 없다).

• 농·어업보상도 없다

원자력이용이 주변지역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농업보상도 어업보상도 근거가 없다. 실제로 프랑스국민이 이러한 요구를 한 일이 없다 (전혀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산업에 공통돼있다). 그 보다는 원자력산업이 들어섬으로써 그 지역이 윤택해진다는 생각이 앞서 있다(공존공영).

• 원자력산업과 식품산업

원자력산업에서의 관리규제의 엄격함은 일반 사업의 수준을 넘어 식품산업의 경우와 같은 수준에 있다. 방사선방어기준은 마치 식품중의 불순물한도기준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3. 정치기반과 원자력 PA의 배경

앞서 소개한 대로 원자력이용에 대한 프랑스의 정치기반은 매우 안정돼있다. 그 시작은 드골대통령에 의한 「핵군비」에 있었던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 1945년의 드골 선언

2차대전 직후 프랑스는 핵군비에 착수했다. 국위선양과 국방을 위해 절대 필요했던 것이 원자력의 군사적인 이용(핵폭탄과 원자력잠수함)이었다. 국민들도 이를 용인했다. 우라늄농축에 관한 연구가 사클레(Saclay) 원자력연구소에서 시작되고 군사용 농축공장이 Pierrelatte에 건설되었다.(농축능력 연간 400t /SWU). 같은 시기에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한 재처리공장이 Marcoule에 건설되었다. 또 원자력잠수함도 셰르부르(Cherbourg) 해군공항에서 첫호를 포함해 7척이나 건조되었다. 이것이 프랑스에서의 원자력이용의 시발점이었다.

• 1958년 평화이용을 시작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도 그랬듯이 「민수용」의 필요성도 인식되어 국가의 대형 프로젝트로 시작된 것은 1958년의 일이었다. 맨처음 착수한 것이 La Hague 재처리공장(UP2 착공 1964년, 일부조업개시 1966년)이고 그 다음에 착공한 것이 Tricastin 농축공장(착공 1974년)이다.

Tricastin공장 건설을 전후해 1970년대초부터 대형 발전소(PWR)가 속속 건설돼 오늘날과 같은 원자력(평화이용) 왕국을 이루게 된 것이다.

• 1970년대 중반 이후의 반대기운

구미지역에서 원자력반대기운이 높아진 시기였지만 프로젝트가 착착 진행되고 있던 프랑스의 원자력정책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그러나 원자력 급증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 1981년의 미테랑정권 등장

프랑스에서 원자력 PA가 더욱 촉진된 것은 미테랑정권의 등장 때문이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그 이전에 사회당은 원자력 개발에 반대하고 있었지만(전면적인 반대가 아니고 급격한 원자력개발을 비판했었다) 미테랑 대통령 등장을 계기로 전면적인 찬성쪽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한 정치가의 변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현실주의적인 국민성에서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국가경제와 민생의 증진에 원자력이 불가결하다는 판단을 우선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반대에서 찬성으로 전환하는 것은 처음부터 찬성일관으로 나오는 경우 보다 국민의 신뢰감을 주고 있다(미테랑정권 등장후 프랑스에서의 반대운동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또 국회내의 구성에서도 찬성과 의원수가 증가했다.

• 중앙집권주의와 정치가의 역량

우수한 기술관료들에 의한 행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프랑스에서의 중앙집권은 과거의 공산권 제국에서 취하고 있던 언론통제의 전체주의는 아니다. 국민의 소리가 완전히 해방되고 보호받고 있다. 중앙집권은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효율적 행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각 원자력시설에서의 업무방침과 프로젝트의 계획 및 진행은 중앙의 원자력청(CEA)에 의해 직접 관리되고 있다. 즉 정부책임하에 국가차원의 일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직·간접적으로 프랑스에서의 원자력 PA 증진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최후의 판단



(결단)은 정치가의 역량(역할)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La Hague 채처리공장의 입지나 UP3 공장의 신설에서도 또 동공장으로의 외국의 사용후 연료 수송경로에 대해서도 마지막 단계는 현재 정치인의 노력과 결단에 의존했다. 법률로 정해진 「지역사회정보위원회」의 의장이 현지정치가로 정해지는 것도 정치가에 대한 프랑스국민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정치는 majority(다수)라는 감각이 보편화돼있다. 각 원자력사업소의 현종업원이나 퇴직자가 사업소측이나 노동조합의 지원을 받아 지방정계에 진출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4. 사회에 대한 사업자측의 PR 노력

사업자측은 사회와의 PR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행히 이 점에 대해서는 프랑스정력공사(EDF)의 「對社會指針」이 있다. 전력관계부서만이 아니고 각종 원자력사업소가 EDF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1)사업소종업원의 위치

근본적으로 사업소종업원은 지역사회의 강력한 일원으로 인식되어있다.

●정보 제공

종업원은 지역사회에서의 중요한 정보원이다. 원자력이나 방사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터득하도록 적시 교육하고 있다. 시설의 운전상황, 사건 등에 대해서는 「週報」를 발행해 게시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중요시하고 있다. 동대표자는 지역의 대표자인 동시에 법률에 따라 설치된 「지역사회정보위원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사고시에 대비한 훈련

만의 하나, 사고가 났을 때에는 사업소 구내에서의 대응만이 아니고 지역주민의 피난유도도 가능한 정도로 훈련을 강화한다.

(2)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지역사회와의 조화
사업자측이 지금까지 노력을 기울여온 것은 지역사회와의 조화된 관계 확립이다.

●사업소 PR센터와 방문객 수용

PR센터의 확충과 함께 이를 담당할 사람은 사회심리학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으로 충당한다. 담당자에게는 시청각교육과 함께 표현기술의 육성도 요청하고 있다. 방문객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시설견학에 응하고 있다.

●사업소발행의 週報

주변 자치단체, 현지 보도기관에 배포해 일상적으로 시설의 상황과 계획을 알리고 있다.

●지역사회개발에 대한 배려

현지 지역사회와는 공존공영한다는 취지하에 현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정보교류

법률에 따라 또는 임의로(자발적으로) 현지 지역사회와의 각 계층과 정보교류를 하고 있다.

지방정치인, 자치단체장, 각종단체 대표자, 학교장 등 외에 지역밀착도가 높은 의사나 소방원 등과도 깊은 교류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현지 언론인들과는 자주 접촉해 참뜻을 전달하고 있다.

● 공개정보의 투명성

주어지는 정보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무엇을 감췄다고 하면 그만큼 신용은 소멸된다. 그후에 아무리 설명해도 주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open door」가 기본이며 이것으로 주민(넓게는 국민)은 신뢰감을 갖는다.

(참고) 사업자들은 「다른 산업에 비해 원자력산업 만큼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분야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원자력산업은 백일하에 노출돼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자들의 견해를 주민들이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 이상시 정보의 즉시통고

결론부터 말하면 이상시 정보통고는 「공백을 두지 말라!」는 것이다. 공백이 있으면 지역주민의 불안과 의혹이 더욱 더 높아진다. 이상원인 규명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규명후에 통고한다는 것은 너무 늦는다. 이상을 발견하면 그것이 사회적으로 다소라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이 가면 이상의 경중에 관계없이 이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이라도 관계기관(주변 자치단체, 국가기관 등)에 즉각 통지해두는 것이 현명한 처사다.

정확한 원인은 그후의 적시통고로도 충분하다. 지역사회의 구성원인 사업소종업원으로 부터의 정보에 의해 현지언론에서 특종기사로 다루기 전에 이미 현지주민들이 이상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쪽이 낫다.

● 환경측정데이터의 공개

환경방사선의 측정결과가 1989년 이후로 지방자치단체, 선임된 주민대표자, 현지 보도기관 등에 모두 제공되고 있다. 이들 데이터는 지방지에 정기적으로 게재되고 있다.

(3) 전국을 대상으로 한 PR

프랑스에서 특이한 것은 학교에서의 원자력

교육과 비디오텍스에 의한 원자력정보 제공이다. 그러나 대중언론매체를 포함해 어떻게 일반대중(국가차원)과의 연계를 유지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과제다.

● 초·중·고교에서의 교육

1960년부터 시작된 국민학교 학생들에 대한 과학교육(「원자력의 이야기」), 중·고교생에 대한 시설견학의 교과목과는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 Minitel에 의한 정보제공

체르노빌사고를 계기로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Minitel 시스템에 원자력정보를 추가해 언제라도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했다.

● Incident Scale의 설정

지진에서의 Richter Scale을 모방해 6단계로 된 원자력사고척도(nuclear incident scale)을 설정, 사고나 고장에 대한 이해(판단)를 쉽게 하도록 했다.

● 세계의 원자력과의 협조

이제는 원자력 개발(이용)이나 안전성문제는 한나라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인식하에 세계의 원자력과의 협조를 촉진시키는 것이 국민적 PA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 일반국민과의 직접적인 대화

체르노빌사고가 직접 대화의 계기가 되었다. 직접대화의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착오도 있었다.

● 대중언론매체의 적극적인 활용

대중언론매체는 정보유통에 있어 일반대중과의 접촉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돼가는 대로 그대로 맡겨두었다. 사업소의 계획이나 정확한 정보를 일상 제공해 대중언론매체를 통해 이것이 일반국민에 침투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의 큰 과제).

(참고)프랑스전력공사(EDF)는 3년만에 원자력발전소의 신규계획(전기출력 1,400MW급 PWR 4기)을 정부에 신청했다(1990년 6월 28일). 이것은 프랑스의 전력수요신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지만 관련지역 및 국민차원에서의 PA(發電對象)에 전망이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4. 원자력발전에 대한 프랑스국민의 태도

유럽원자력학회 주최로 1991년 1월 27일~30일에 프랑스 "낭시"에서 열린 「원자력홍보 실천에 관한 국제워크샵(ENS PRIME '91: International Workshop on Nuclear Public Information in Practice)」에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Philippe Ansel 씨에 의해 소개된 「원자력발전에 대한 프랑스국민의 태도 (The Attitude of the French towards Nuclear Power)」의 전문을 여기에 소개한다.

1. 원자력발전과 환경

(1)프랑스국민의 환경에 대한 우려

프랑스에서는 원자력발전이나 환경문제가 큰 우려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 국민은 원자력발전소 보다도 화학폐기물이나 오존 감소, 방사성폐기물을 더 걱정하고 있다.

(2)원자력발전과 온실효과

신문기사로 많이 다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국민의 온실효과에 대한 지식수준은 매우 낮으며 다른 서방제국 보다 낮은 것 같다.

일반대중은 온실효과를 smog와 같은 대기오염 현상과 동일시해서 오존층과 온실효과를 결부시켜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들의 생각으로는 온실효과는 거의 오존 감소로 동일시되고 있는 것이다. 온실효과에 대해 말하던가 쓰던가 하는 것이 모두 오존층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환경에게 가장 위험한 것으로 온실효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과 1% 밖에 되지 않는 이유이다.

이것은 또한 온실효과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미국보다도 타당하지 않은 이유가 되기도 한다.

(3)원자력발전소와 환경론자에 대한 투표

현재 녹색당을 지지하는 잠재적인 유권자는 프랑스에서 투표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7~12%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소는 환경론자에 투표하게 되는 요인중에서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 원자력발전에 대한 프랑스국민의 태도

(1)일반적인 태도

오늘날 프랑스국민은 원자력발전을 지지하고 있다기 보다 용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지속적인 운전에 동의하고 있고 원자력발전소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2)원자력발전에 반대하는 의견

방사성폐기물과 체르노빌 참사는 원자력발전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게 된 요인이다.

원자력발전에 반대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방사성폐기물에 대해서는 지극히 우려하고 있다.

체르노빌은 또 매우 강경한 의견을 갖게 하였다. 대중언론매체를 통해 체르노빌사고가 특

별히 다루어질 때마다 이러한 의견은 늘어가고 있다.

최근 2년간 체르노빌기념 기사가 일반대중에게 큰 영향을 주어 이것이 원자력발전소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다.

(3) 원자력발전에 찬성하는 의견

찬성하는 의견은 3가지로 볼 수 있다. 즉,

-에너지 자립이 프랑스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의 최우선 과제라는 의견이다. 이러한 의견은 걸프사태에 따라 더욱 지지를 받고 있다.

-원자력발전의 경제적 이점을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는 의견이다.

-환경보호가 원자력발전에 대해 새로운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의견이다.

(4) 걸프사태의 영향

걸프사태의 일반대중에서의 영향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번 사태는 원자력발전 자체의 이미지보다도 전력의 이미지에 유리하다.

일반대중은 전혀 에너지 위기와 원자력발전과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EDF가 미묘한 위치에 있다는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른다. AFME는 이 기회에 에너지를 절약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EDF는 원자력발전에 대해 별로 얘기하지 않고 있다.

(5) 원자력발전소 운전

일반사람들이 원자력을 용인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원자력발전소에 관해 많은 것을 알리는 정책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원자력 추진자들에 대한 신뢰성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따라서 유럽에서는 원자력 추진자들이 신뢰받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추진자들(EDF와 CEA)에 대한 기술적인 신뢰성이 매우 높지만 양기관의 정보에 대한 신뢰성은 아직 낮다. 일반대중은 판단하는 측의 양쪽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부터 원자력과 온실효과가스의 대기중으로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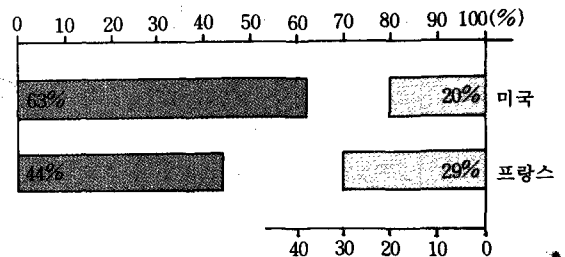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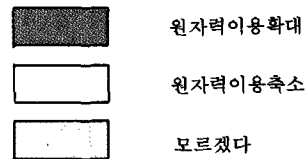
질문:당신은 세계적 차원에서 환경에 대해 어떤 것을 걱정하고 있는가? (회답은 하나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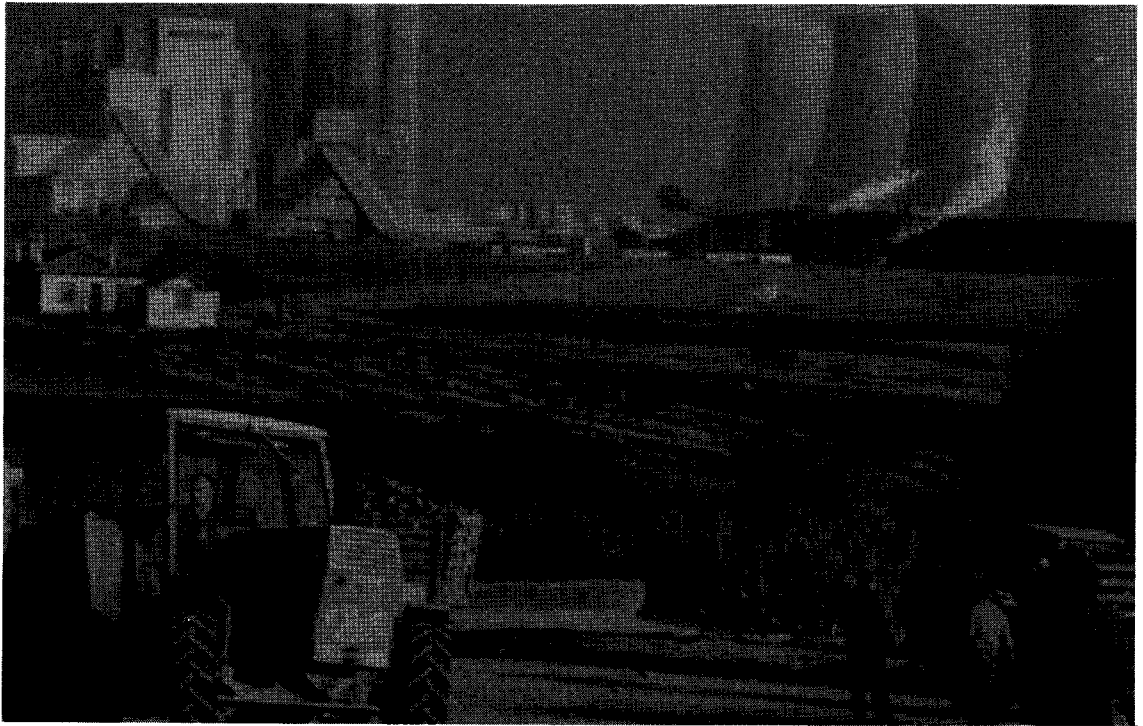
	NATIONAL 1990
오존감소	21
방사성폐기물	20
삼림파괴	16
화학폐기물	13
원자력발전소	10
석유유출	6
교통수단으로 인한 대기오염	5
인구증가	5
산성비	2
온실효과	1
기 타	1
합 계	100

의 방출에 관한 2가지 안을 소개하겠다. 당신의 의견은 어느 쪽에 가까운가.

-우리는 온실효과가스와 지구온난화 문제를 축소시킬 수 있다면 원자력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

-우리는 온실효과가스와 지구온난화 문제가 확대된다 해도 원자력 이용을 축소해야 한다.





자연보호를 위해	35%
환경보호를 위해	34%
공해에 반대하니까	20%
환경보호단체가 자기이상에 가까우니까	15%
기존정당에 반대하니까	14%
그들은 인류의 삶을 회구하고 있다	13%
물을 보호하기 위해	9%
그들은 좌우파 어느쪽에도 속하지 않으니까	6%
아이들을 위해	6%
진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6%
원자력반대	5%
삼림보전	5%
대기나 오존을 지키기 위해	5%
최우선과제다	4%
생활수준	3%
동물보호	3%
변화를 이르기 위해	3%
인산비료	3%
쓰레기	3%
새로운 정당이니까	1%
건강을 위해 노력하니까	1%

환경보호단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원래의 동기 원자력에 대한 태도: 지지한다기 보다는 받아들이는다.

	1989	1990 6월	1990 11월
우리는 발전소건설을 계속해야 한다.	14%	10%	13%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필요는 없지만 기존발전소는 운전을 계속해야 한다.	58%	63%	63%
우리는 모든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	20%	20%	19%
무응답.	8%	7%	5%
합 계	100%	100%	100%

「원자력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1989년	1990년
방사성폐기물	49%	34%
체르노빌	28%	42%

프랑스원자력발전소에서의 트러블	13%	16%
전력의 과잉생산	2%	3%
기 타	6%	4%
무응답	6%	4%
합 계	100%	100%

「현시점에서 원자력을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1990년 6월	1990년 11월
에너지공급의 자립화	33%	41%
발전코스트	18%	16%
경제개발	24%	20%
환경보호	11%	12%
기 타	1%	1%
무응답	12%	10%
합 계	100%	100%

질문: 「당신 생각에 어떤 에너지가 앞으로 5년
간 가장 증가할 것으로 보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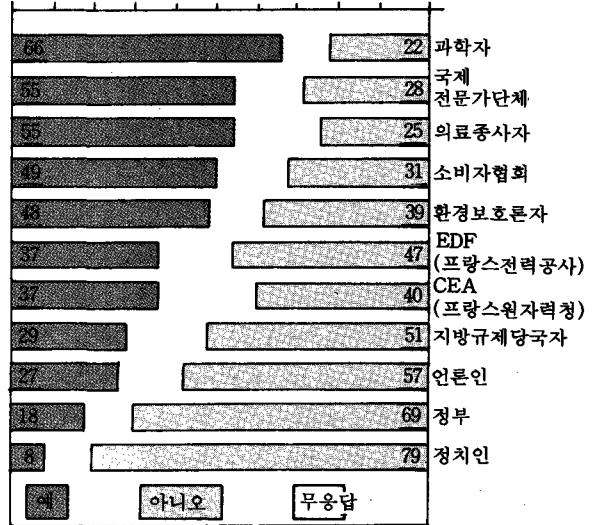
	1989년 10월	1990년 6월-7월	1990년 11월
석 탄	22%	10%	6%
전 력	36%	45%	32%
석유연료	19%	21%	40%
가 스	7%	11%	9%
무응답	16%	13%	13%
합 계	100%	100%	100%

질문: 「원자력발전소는 시설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보는가?」

	1990년	1990년 6월	1990년 11월
그렇다	63%	67%	65%
모르겠다	13%	12%	11%
아니다	24%	21%	24%

정보에 대한 신뢰도

「아래의 情報源은 원자력발전에 대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보는가?」



기술에 대한 신뢰도

「아래의 사람들이나 조직은 원자력산업계에서
기술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보는가?」

